

공동체 소식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 입니다.**

전례력으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 입니다. 축일명대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임금)이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백성을 억누르는 임금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실현하셨습니다.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11/30(목):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 **본당 소공동체 봉사자 모임**

일시 : 오늘 교중미사 후

■ **2018년도 매일미사 책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12/10(주일) 까지, 전례부원에게 주문바랍니다.
-가격 : 60달러/년

■ **2017년 성탄 행사 안내**

주제 : 나눔” (Ubi caritas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t;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 기쁨 나눔 : 12월 24일 성탄 성야미사 후, 성당 천교실
-기도 나눔 : 12월 25일 성탄 미사 후, 성당 천교실(대림시기 동안 가정별 기도 나눔)
- 재능 나눔 : 12월 25일 성탄미사 후, 성당 천교실(재능 기부+재능 잔치)
* 구체적인 행사 신청, 준비, 참여 관련 내용은 별도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성탄 행사 안내**

내용: 성당 게시판 참조.

■ **교무금 완납 및 책정에 대한 안내**

내용: 교무금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그 대들도 받을 것입니다.” (마태 7,2)라고 되어 있듯이,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총은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73	219	174	75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이원준 요한
차 주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차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띠노	최은미 아녜스

■ **애찬 봉사자**

금 주	그리스도 왕 대축일, 행사 제2조.
차 주	조경희, 박계숙, 박주연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라우렌시오
차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19	50명	232달러	500달러
총 2세대			

그리스도왕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2코린 4,18-

2017년 11월 26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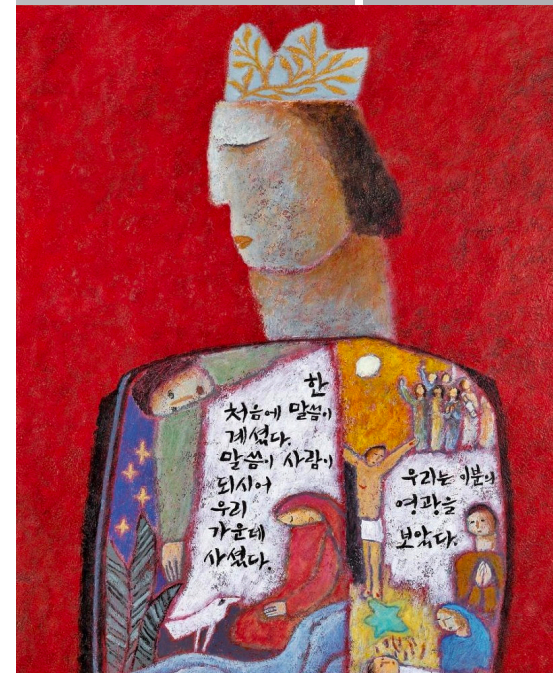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로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자를 하나뿐인 임금이며 목자로 삼으시어, 비탄의 역사 속에서도 사랑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성자께서 아버지께 구원의 업적을 바치시는 날, 아버지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을 심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림 묵상 '우리의 왕 그리스도'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39-40)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례에서 영광스러운 임금님이 가장 비천하고 궁핍한 사람들과 하나 되신다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내용을 듣습니다. 그분은 약한 이들 위에 군림하려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다르신 분, 당신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우리의 유일하고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것, 그분 왕국의 시민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4,11-12.15-17
<너희 나의 양 떼야, 나 이제 양과 양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 화 답 송 :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20-26.28
<그리스도께서는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31-46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가를 것이다.>



구원과 파멸, 종말에 심판하실 주님

오늘 제1독서에서 주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양 떼를 찾아 보살피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에제 34,11) 당신은 유배로 인해 흩어져 있던 당신의 양 떼 이스라엘을 구해 내고 보살피실 것입니다. 당신 몸소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누워 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화답송에서 노래하는 시편 23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주님께서 착한 목자이시기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 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 버리겠다”(에제 34,16)고도 말씀하십니다. 양 떼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들 가운데는 다른 양들이 먹어야 할 것을 대신 빼앗아 먹고, 약한 양들을 밀쳐대는 힘센 양, 곧 거들먹거리며 교만을 떠는 나쁜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백성들을 유배라는 힘든 상황에 빠트렸던 임금과 그의 신하들, 높은 지위를 누리던 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유배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배불리는 양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덧붙여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에제 34,17)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르곤 했는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양들은 순하기는 하지만 게을러서 움직이기조차 싫어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염소가 없으면 병에 걸리기도 쉽고, 길을 찾아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염소들은 겉으로 보기에 양들을 못살게 구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게으른 양들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며 어려운 길이나 위험에서 양들이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 50,8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빌론 한가운데에서 칼데아인들의 땅에서 도망하여라. 거기에서 빠져나와 양 떼 앞에서 걷는 숫염소들처럼 앞장을 서라.” 이렇게 보니 숫양과 숫염소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는 하느님 말씀은 마치 다른 양들의 것을 빼앗아 먹은 뒤 누워서 살만 썩은 숫양과 사람들에게 비난받지만 오히려 그들을 이끌고 가며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는 숫염소 사이에 시비를 가려주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염소의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이게 된 데에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영향이 큼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오른쪽에, 염소들을 왼쪽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뒤 오른쪽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왼쪽 사람들에게는 파멸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염소들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생겨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염소가 양보다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분명히 드러나고 갈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목자는 양과 염소를 우리에 넣을 때 추위를 타는 염소는 우리 안쪽에, 더위를 많이 타는 양은 우리 바깥쪽에 따로 구분해서 재우는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둘로 가르는 행위 자체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임금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로 종말 때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옥좌에 앉을 재판관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곧, 종말이 되면 모든 이들을 그 행실에 따라 심판하시어, 어떤 이는 구원으로, 어떤 이는 파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당신 재판의 기준도 명확히 밝혀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굶주리고, 목마르며, 나그네로 살고, 헐벗으며, 병든 이들을 어떻게 대하였느냐입니다. 그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한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이들은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전례력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있는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쪽 편에 서게 될 이들인지에 관해 깊이 되돌아봅시다.



양심

하느님의 법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理性)으로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하느님의 법은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느님의 법을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자연법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양심을 통해 자각하게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은 천성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본성상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 신비로운 하느님의 목소리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conscience)이라는 말은 그 어원상 ‘함께 안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안다는 것입니다. 사목 현장 16항에 따르면 인간은 양심 속 깊은 데서 법을 발견합니다. 이 법의 소리는 언제나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말씀을 마음의 귀에 들려줍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새겨 주신 법을 인간은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충실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본연의 존엄성을 지켜갈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장차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본질적인 역할은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가릴 때, 처음에는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자연적인 삶의 차원에서는 결국 남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속한 단체나 국가, 인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선(善)이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육신 생활을 영성 생활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느냐 아니면 이기적인 육신 생활을 위하여 삶의 모든 것을 바치느냐에 따라 선악을 가리는 것을 최후의 판단 원리로 삼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의식(意識)이자, 한 인간이 오직 하느님 한 분과 머무는 지성소(至聖所)입니다. 양심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완성되는 하느님의 법을 놀라운 방법으로 밝혀 줍니다. 양심에 충실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결합되어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윤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복자 바오로 6세 교황).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나누기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서 알게 되거든요.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드러나서 많은 것이 달라요.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봐도 척 알아볼 수 있어서 구분이 되는 거랍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마태 25,31)

